

회고를 위한 회고 - Action Item의 실행 여부 점검

서준수 (우아한형제들)

발표자 소개



- 현) 우아한형제들

우아한테크코스 모바일 안드로이드 코치

- 전) 카카오VX, LG유플러스, LG전자

- 저자

모바일 앱 개발자를 위한 닥트&플러터 (2020)

코틀린 이것만 보면 돼 (2019)

- 블로거

<https://brunch.co.kr/@mystoryg>



MBTI 대문자 I입니다만

- 여러 사람이 모이면 급격히 별로 말이 없다.
- 내향적인 성격을 바꿔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 내향인과 외향인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 성격일 뿐이다.
- 나답게 살자.
- 외향인의 모습을 종종 동경하였다.

나답게 살자는 번지르르한 말로 포장했지만 사실 한계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닐까?

무의식 중에 정한 한계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서 강의하는 것은 못해, 발표하는 것은 못해, 사람들과 친해지기 어려워.

하는 일이 교육입니다

- 개발자는 내향적인 사람이 하기에 너무 좋은 직업
- 개발자에서 교육자로 전향
- 여러 사람 앞에서 강의
- 교육생과의 1대1 면담

생각보다 재미있는데요?

- 강의는 상당히 힘들지만 간혹 만족스러움
- 의외로 1대1로 이야기할 때 편안함
- 입학 설명회 유튜브 생방
-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라이트닝 토크

처음 발표를 해봤습니다

DevFest Seoul 2023 발표

- 질문도 마케팅이 필요하다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내가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발표



그래서 또 해봤습니다

스스로 정한 한계에서 탈피

4.6 (토) **Native vs Flutter** 그리고 **KMP** (그래봤자 네이티브, 그래도 네이티브)

4.25 (목) 우주인 밋업 (오거나이저)

7.10 (수) **SeSAC** 취업 특강 (안드로이드 개발자 레시피)

7.17 (수) 구름 **COMMIT** 강연 (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 되기)

12.8 (일) **K-DEVCON 서울 : 십이월엔 셀프 회고 릴레이**
(회고를 위한 회고 - **Action Item**의 실행 여부 점검)

12.21 (토) **Devfest 2024** 인천 / 송도
(개발자가 더 큰 성장을 이루는 방법 (feat. 교육자))



완벽주의라는 허울

- 어떤 것을 할 때 늘 완벽하게 잘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
- 완벽주의자적인 성격 때문이라는 등의 표현조차 낮간지럽다.

실제로 달성하지도 못할 만큼 높은 기준을 잡아 놓고 불만족하기

VS

준비가 조금 미흡하다고 여겨져도 생각보다 괜찮은 반응이 나오는 경험

완벽한 계획보단 적당한 실천

강의 준비가 완벽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

잘하려는 마음과 부족한 역량의 충돌!

- 1) 우리 조직은 늘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 2) 경험치가 쌓인다.
- 3) 교육생들은 배우러 온 사람들이다.

외부 강의를 해봤습니다

카카오테크 캠퍼스 2기 안드로이드 강의

의무감과 책임감이 동반되는 일은 무게감이 다르다.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날이 정해져 있다.

공포증 치료에 노출 요법이 있다.

- 비슷한 내용의 강의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 강의를 공포는 아니었지만, 아니었기에 작은 반복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

[강의 내용 깊이]						
지식과 프로그래밍 스킬이 모두 향상되었다.						11
지식은 향상되었으나 프로그래밍 스킬은 향상되지 않았다.						19
기존 내가 보유한 지식 및 스킬과 동일하다.						4
[강의 내용 깊이]						
지식과 프로그래밍 스킬이 모두 향상되었다.						24
지식은 향상되었으나 프로그래밍 스킬은 향상되지 않았다.						5
기존 내가 보유한 지식 및 스킬과 동일하다.						0

Q&A

감사합니다.



LinkedIn